

도록 갖추고자 군수 조인징(趙仁徵)이 고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돌로 다리를 이룩하여 놓으니 모든 왕래에 막힘이 없게 되었다. 공사비 부담 등 공사에 참가한 자들을 이 돌에 새겨둔다.

만력(萬曆) 31년(1603 : 선조 37) 3월 일

대공주(大供主) : 김△수(金△水)

시주(施主) : 95명

석수(石手) : 황종이(黃從伊)

제3절 국보

1. 국보 제242호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⁸³⁹

갑진년(甲辰年)[신라 법흥왕 11년, 524년] 정월[1월] 15일에 탁부의 모족지 매금왕[법흥왕]과 사탁부의 사부지 갈문왕[법흥왕의 동생인 입중, 즉 진흥왕의 아버지], 본파부의 무부지 오간지, 잠탁부의 미흔지 간지, 사탁부의 이점지 태야간지, 길선지 아간지, 일독부지 일길간지, 탁부의 물력지[거칠부의 아버지] 일길간지, 신육지 거벌간지, 일부지 태나마, 일이지 태나마, 모십지 나마, 사탁부의 십사지 나마, 실이지 나마 등이 하교(下敎)하신 일이다.

따로 영(令)을 내리시길, “거벌모라[울진지역 중심지]와 남미지[울진지역 촌]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지만 앞선 시기에 왕께서 크게 법을 내려주셨다(大敎法). 그런데 길이 좁고 험하고 험한 화야계성(禾耶界城)에 마음대로 불을 내고 성(城)을 침범하여 우리 대군(大軍)이 일어났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행동(行)과 말(言)이 하나같아야 사람들이 주(主)을 보호하고 왕(王)을 높이게 될 것이니, 큰 노인촌(太奴村)은 값 5(50%)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종목별로 노인법(奴人法)에 따르라.”라고 하셨다.

이에 신라 6부(新羅六部)는 칠소(斑牛)를 죽여 피가 솟는 것을 보고 재판하였다. 일을 처리한 대인(大人)은 탁부의 내사지 나마와 사탁부의 일등지 나마, 막차 나족지, 탁부의 비수루 나족지, 거벌모라 도사 졸차 소사제지, 실지[삼척] 도사 오루차 소사제지이다. 거벌모라 니모리 일벌, 미의지 파단, 탄지사리 일금지와 아대해촌[울진지역 촌] 사인 나이리는 장(杖) 60대, 갈시조촌[울진지역 촌] 사인 나이리 거△척, 남미지촌[울진지역 촌] 사인 익사는 장 100대, 어즉근리는 장 100대에 처한다. 실지[삼척] 군주인 탁부의 이부지 나마가 일을 맡았다.

839. 울진봉평신라비의 해석은 조영훈, 이찬희, 심현용, 2013.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재판독과 보존과학적 진단」 『文化財』46-3, 국립문화재연구소, 8쪽을 인용했다.

글 쓴 사람(書人)은 모진사리공 길지지와 사탁부의 언문 길지지이고, 비에 글을 새긴 사람(新人)은 탁부의 술도 소오제지와 사탁부의 모리지 소오제지이며, 비를 세운 사람(立石碑人)은 탁부의 박사이다. 이때에 하교(下敎)하시기를,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죄를 얻으리라[천벌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거벌모라의 이지파 하간지와 신일지 일척이 그 해(年)에 (이 일을 마쳤다). 글자는 398자(字)이다.

제4절 기(記)

1. 굴(窟)

1) 성류굴

(1) 이곡의 성류굴기(李穀 聖留窟 記)

절이 돌벼랑 아래 긴 시내 위에 있는데 벼랑돌이 벽처럼 1천 자는 섰으며 벽에 작은 굴이 있는데 성류굴이라 한다. 굴의 깊이를 알 수 없으며 또 으스스하고 깊어서 촛불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절의 중으로 화를 들리고 인도하게 하였다. 또 뱃사람 중 출입하기에 익숙한 이로 앞서고 뒤서게 하고 들어갔다. 구멍 아가리가 좁아서 무릎으로 4, 5보(步)를 가야 좀 넓고 일어서서 또 두어 보를 가면 끊어진 벼랑이 세 길은 된다.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면 점점 평탄하고 높고 넓어지는데 수십 보를 가면 평지가 있어 두어 무(畝)는 되고 좌우로 돌 형상이 기이하다. 또 열 보쯤 가면 구멍이 있는데 북쪽 구멍 아가리가 더욱 좁아서, 엎드려 나가는데 아래는 진흙물이므로 자리를 깔아 젖는 것을 방지한다. 7, 8보를 가면 좀 트이고 넓어지는데 좌우 쪽이 더욱 기이하여 혹은 갯발 같기도 하고 혹은 부처 같기도 하다. 또 십 수 보를 가면 돌들이 더욱 기괴하고 그 형상을 무엇인지 모를 것이 더욱 많으며, 그 갯발 같고 부처 같은 것이 더욱 길고 넓고 크다. 또 4, 5보를 가면 불상(佛像) 같은 자도 있고 또 고승(高僧) 같은 자도 있으며 또 못물이 있는데 매우 맑고 넓이가 두어 무(畝)는 될 만하며, 그 가운데 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레바퀴 같고, 하나는 물병 같은데 그 위와 곁에 드리운 갯발이나 일산 같은 것이 모두 오색이 영롱하다. 처음에는 돌젓[鐘乳]이 엉긴 것으로 그렇게 굳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지팡이로 두드리니 모두 소리가 나며 그 모양이 길고 짧은 데 따라서 맑고 흐린 것이 편경(編磬)같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못을 따라 들어가면 기괴하다’ 하는데 나는 ‘이것이 세속 사람으로서